



김제 백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7월 정기회의

김제시 백산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최미화)는 지난 28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고은용) 7월 정기회의를 백산면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갖고 민관협력 및 하반기 특화사업 추진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상반기 민관협력으로 휴경지에 옥수수를 심어 소외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옥수수 나눔 사업 성과 및 하반기 특화사업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들도 모색했다.

고은용 민간위원장은 “백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의 구심체로서 지역 주민의 행복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저소득층을 위한 특화사업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최미화 백산면장은 “그동안 백산면 협의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하여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이 상당히 개선되었음에 감사드린다”며 “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먹거리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임실 삼계면 행복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삼계면 행복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한중석, 김진덕)가 지난 26일 삼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3년 삼계면 행복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손에 손잡고 꽃길만 걸어요!’ 취약계층 나들이 지원사업 추진 일정과 365일 안심등대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추진 여부에 관한 사항을 안건에 옮겨 마을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눴다.

‘손에 손잡고 꽃길만 걸어요!’ 취약계층 나들이 지원사업은 9월 1일 문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365일 안심등대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은 계속 추진하기로 하고, 추후 회의 때까지 명단을 추천받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추진될 특화사업의 사업비는 삼계지역 주민과 상가로부터 매월 자발적으로 성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모여져 그 재원을 통하여 사용된다.

김진덕 민간위원장은 “지역 내 복지 문제를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중석 삼계면장은 “삼계면 협의체 위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에 감사드리고, 민·관 협력 확대를 통해 보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정읍시, ‘준비된 청년창업가’ 육성

청년창업 역량강화 컨설팅 수료식… 1:1 컨설팅 통해 수료생 10명 배출

정읍시가 지난 26일 정읍시 청년지원센터에서 2023년 청년창업 역량강화 컨설팅 수료식을 개최했다.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창업가와 창업 1년 이내의 초기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컨설팅은 분야별 전문가 1대1 컨설팅을 통해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했다.

주요 과정은 ΔSNS 홍보마케팅 Δ비즈니스 모델의 개념 및 이해 Δ창업자를 위한 세무·회계 컨설팅 등 7개 과정이었으며, 총 1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또한, 시는 청년 창업가에게 창업자금을 연 50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해주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연계 추진해 청년 창업가를 단계별로 지원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읍형 로컬 청년 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은 “준비된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군 장계면 지사협, 홈클리닝 사업 실시

장수군 장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신응수·임재성)는 지난 27일 주거취약계층 2가구를 선정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홈클리닝 사업’을 실시했다.

홈클리닝 사업은 주거환경이 취약하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에 대청소를 비롯해 도배, 장판, 방충망 등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장계면사무소 직원 등 10여 명은 집 안팎을 대체적으로 청소하고 기존의 도배, 장판을 걷어내는 등 구슬땀을 흘리며 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깔끔하게 정비했다.

임재성 민간위원장은 “민·관이 협력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웃에게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 보람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돋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편호 기자

장수경찰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장수경찰서(서장 정덕교) 여성청소년팀·장계초등학교 학부모·도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등과 함께 장계면 일대에서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은 청소년들의 하계방학을 맞아 위기청소년 발굴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민·관·경 합동 점검·계도 활동을 통해 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 등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되었다.

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시간(오후 10시 이후) 위반 △호프·카페·숙박업 등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행위 등이 청소년 보호법 단속이 됨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6월 28일부터 실시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 됨을 고지하고 반드시 신분증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를 배부하였으며, 반드시 업소 내에 부착 할 것을 당부했다.

정덕교 서장은 “남은 하계방학동안 지속적으로 피서지 주변 및 번화가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단속 등을 실시하여 우리사회 미래인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편호 기자

진안군일자리센터, 차(茶) 민간자격증 취득반 수료식

진안군일자리센터는 청년공간 월링에서 ‘티(tea)미스터 3급 자격증 취득반’ 수료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 처음 개최한 이번 자격증 취득반은 차(茶) 제조, 조리, 관리, 판매 등 차(茶) 관련 분야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주 2회 3시간씩 4주간 운영한 수업은 차(茶)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예절, 문화, 실습을 통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번 수료식을 통해 수강생 10명은 차(茶) 민간자격증(한국직업능력연구원 소관)을 취득하며 수강생의 민족도를 더욱 높였다.

김시흡 농촌활력과장은 “앞으로도 군민의 관심에 맞는 취업 역량강화 자격증 반을 통해 진안군민의 전문적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신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65	김제지사 545-1227
서신지사 010-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85
호자지사 010-88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의산지사 858-9923	고창지사 563-6999

※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무주소방서, 새내기 소방공무원 실무적용교육

무주소방서는 지난 28일 새내기 소방공무원 현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적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소방펌프차 운용 훈련 △생활안전 및 구조 장비 숙달 훈련 △관찰조작 및 방수훈련 △소방행정업무를 위한 행정시스템 활용방법 등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 보건소, 아토피·천식 힐링 프로그램 운영

김제시 보건소는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부모 및 환아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28일 아토피·천식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아토피·천식 힐링 프로그램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이해를 돋고 체험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제시에서는 지난 4월 ‘아토피 안심간식 만들기 체험’을 시작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이번이 2회차이다.

프로그램은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수칙에 대해 알아보고 이후 박용욱 강사가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올바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학습도 유익했다”며 “앞으로 아토피·천식 힐링 프로그램에 지속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